

## 제35강 논술 프로그램의 실제

### 1. 독서논술

- 1) ‘너는 특별해’, ‘넌 누구니’, ‘마당을 나온 암탉’을 읽고 입양에 대해 생각하기

#### ‘너는 특별해’(베를케/조운 링가드)

“입양은 ‘특별한 사랑’ 이래요”(동아일보-2001.9.22)

누군가에게 “너는 특별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자신의 특별함 때문에 행복감을 맛보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 특별함 때문에 오히려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주인공 톰은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이 늘 자랑스러웠다. 자신은 입양된 아이였고, 그래서 양부모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은 아이라는 것에 익숙해 있던 톰은 어느 날 친구인 샘으로부터 양부모의 선택을 받은 것보다, 엄마 아빠가 자신을 직접 낳았다는 사실이 더욱 더 특별하다는 말을 듣고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양부모의 변함없는 사랑에도 톰의 마음은 허전하기만 하다. 게다가 아기를 낳을 수 없었다던 엄마가 예쁜 여자 아이까지 낳게 되자 톰은 자신을 낳아 준 생모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만 간다. 여덟 살짜리 톰은 자신에게 닥친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갈까?

여기서 톰의 양부모가 보여주는 태도는 핏줄에 대한 집착이 남달라 아직도 국내 입양보다 해외 입양이 훨씬 더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닐지라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만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큰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입양’이라는 말이 아이들에게는 낯설게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기 자신만 알고, 자신이 정해 놓은 기준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한다면 놀리거나, 무시해 버리는 아이들, 타인에 대한 배려를 모르는 요즘의 많은 아이들에게 이 책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 이외의 삶을 바라보고, 느끼고,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것은 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값진 성장이 아닐까? 저학년 아이들에게 있을 법한 에피소드가 양념으로 들어 있어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면 무리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오혜경(주부, 서울)

## ‘마당을 나온 암탉’ (황선미 / 사계절)

성림초등학교 제 5학년 1반 강민수



2004년 우리 학교는 독서인증제를 시작하였습니다. 5~6학년이 읽어야 할 책에 이 책이 포함되어 있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제목을 보고 첫 느낌은 마당에서 살게 된 암탉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마당으로 나와서 다시 마당 밖으로 나가게 되는 암탉의 이야기였습니다.

주인공 잎썩은 양계장에 갇힌 채 알만 낳는 난용종 암탉이었습니다. 양계장 문 밖에서 양증맞은 병아리를 데리고 다니는 암탉을 본 뒤부터 남몰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당에 나오기를 꿈꾸는 아주 간절한 소망을 갖고 지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잎썩이 정말 훌륭하다고 느낀 것은 자기가 꿈꾸고 있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감명적인 부분은 마당에 나와 본 후입니다. 마당에서 수탉과 함께 병아리를 키우면서 살 수 없는 자기의 운명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당 밖으로 나와 다른 길을 찾으면서도 자기의 소망을 그래도 잊지 않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와 다른 동물들에게 따돌림을 받으며 얼마나 외롭고 슬펐을까요? 게다가 끝까지 계속되는 족제비의 위협은 이 책을 읽는 동안 저를 조마조마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청둥오리를 만나 저수지로 가면서 잎썩의 소원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록 자기가 날지는 못하지만 지극한 사랑으로 품어 키운 초록머리가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헛간의 우두머리 오리가 보았을 때 잎썩의 마음은 정말 기쁨으로 가득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두머리 오리가 그랬듯이 아직도 고개 숙여 저도 잎썩에게 존경을 표시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애꾸눈 어미 족제비와 잎썩의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는 것 같아 안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내용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끼리 서로 통하니까요.

그러나 마당을 나온 암탉의 일생은 아카시아 꽃처럼 눈이 내릴 때 초록머리와 충분히 말도 못 나누고 이별을 하고 혼자 남게 됩니다.

“한 가지 소망이 있었지. 알을 품어서 병아리의 탄생을 보는 것! 그걸 이루었어. 고달프게 살았지만 참 행복하기도 했어. 소망 때문에 오늘까지 살았던 거야. 이제는 날아가고 싶어. 나도 초록머리처럼 훨훨, 아주 멀리까지 가 보고 싶어!”

잎썩의 독백입니다.



그날 잎삭은 날고 싶은 또 다른 소망을 꿈꿉니다. 눈발을 온몸으로 맞으며 아카시아 꽃의 향기와 부드러운 바람을 느끼며 눈부시게 파란 하늘 위로 깃털처럼 떠오릅니다.

힘겨운 일생이었지만 자기의 소망을 꽃피운 잎삭에게 저는 존경과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슬픈 이별을 하게 되었지만 배고픔도 추위도 따돌림도 없는 편한 세상에서 초록머리와 함께 멀리 아주 높이 날아오르는 꿈을 꾸며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 ‘넌 누구야’ (황선미/사계절)

책을 읽음으로써 얻게 되는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오롯이 나만의 행복이요, 기쁨이기에 그렇다. 책은 삶이 주는 힘겨움을 잊을 수 있고, 미래의 다리를 놓아주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과거와의 조우가 내게 편안함을 준다. 먼지를 폴폴 뒤집어쓰고 내가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다락방이 그러했다. 책은 과거의 다락방 속으로 나를 이끌어준다. 정신없이 바쁜 생활 속에서 과거를 만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행운이다. 어렵고 심오한 책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되고 나서 나는 동화책이 좋아졌다. 아이들을 위해 책을 사면서 내 마음이 설렘을 느낀 적이 많았다. 동화 속에 담겨있는 세상은 아이들의 것이기도 하지만, 나의 것이라 자부해본다.

황선미 님의 「넌 누구야」를 읽으며 가슴한구석이 아릿해짐을 느꼈다. 한 시간이면 후다닥 읽어버릴 정도의 분량이지만, 쉽게 책을 놓지 못하는 힘이 느껴졌다. 이상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책을 읽고 있는데, 나의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걸어 들어옴을 느껴졌다. 나에게도 주인공 찬이 만한 열 살짜리 아들 녀석이 있고, 여섯 살 성주 같은 딸아이가 있다. 하루하루 자리싸움으로 전쟁을 치르는 녀석들을 보는 것이 나의 현재이자 과거이다. 보육원에서 데려온 성주를 가족으로 감싸 안지 못하는 찬이의 마음은 내 아들의 그것일 것이다. 동생에게 사랑을 빼앗겨 ‘왜 나만 미워해요?’라며 울부짖는 아들을 나는 이제야 이해한다. 그것은 나만의 것을 빼앗기기 싫은 이기심만은 아니리라. 자신의 자리를 누군가 차지해버린다는 것은 상실감과 이어진다. 딸아이가 나타나기 전까지 아들의 자리는 확고부동했던 그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찬이가 그렇게 성주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상실감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상처받은 찬이의 마음, 그 빗장은 쉽게 열릴 수 없었다. 자신이 입던 옷과 인형, 장난감을 들고 나타난 성주에게 모든 걸 빼앗긴 기분이었던 것이다. 자신의 추억까지 가져가고, 엄마를 빼앗겼다고 울부짖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찬이는 성주가 빼앗아간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성주가 보여준 것은 자신의 소중한 추억임을 말이다. 또한 성주의 여섯 개의 왼쪽손가락은 소외받고 외로운 영혼을 보여줌을 깨닫

는다. 그 외로움에 다가가서 보듬을 수 있는 마음을 찬이는 갖게 된 것이다. 성주가 아니었다면 잃어버린 추억과 가족의 소중함을 찬이는 영영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어쩌면 찬이는 외동아이 특유의 이기심만 가득한 아이로 자랐을지 모른다. 성주를 통해 나눔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었던 것이다.

가족이란 단어만큼 깊고도 진한 감동을 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피를 나눈 가족도 해체되어가는 요즘, 타인과 타인이 만나 가족이 된다는 것은 힘든 과정이 동반한다. 그 과정은 엄마의 노력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찬이의 웃과 장난감을 성주에게 입혀서 가족으로 융화시키는 노력은 작은 것처럼 보이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또한 「넌 누구야?」는 요즘 아이들의 관심을 잘 보여준다. 비밀기지, 바이오니클, 와하박쥐 등등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것 같다. 아이들의 관심사와 그들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동화야 말로 아이들에게 진정한 쉼터가 되어 주지 않을까 싶다. ‘넌 누구야?’는 제목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 나는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가를 말이다. 어쩌면 세상을 돌아보라는 외침 같기도 하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과 어울려 사는 세상임을 말이다. 말을 더듬지만 순수한 아이 동일이, 엄마의 성을 쓰면서 아픔을 삭이며 사는 종민이와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이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듬고 살아가야 하는 세상임을 이 책은 보여준다.

‘넌 누구야? 재밌는 제목이네! 읽어보아야지’ 아들 녀석이 내손에 있는 책을 낚아채어 가버렸다. 잘 읽고 있나 싶어서 슬쩍 제 방을 들여다보았다. 아들은 책 속에 빨려 들어갈 듯, 저만의 세계 속에 빠져있었다. 키득거리며 웃는 표미 여간 행복해보이지 않았다. 책 읽는 기쁨을 알았으니, 저 아이의 인생도 그리 외롭지 않으리라 싶었다. (조은정/ 2005년 3월)

2) ‘행복한 왕자’, ‘팽이부리말 아이들’, ‘상계동 아이들’을 읽고 **가난한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가 생각하기

3) ‘비닐똥’, ‘나라를 버리는 아이들’, ‘남북공동초등학교’를 읽고 **통일에 대해** 생각하기

## 2. 교과논술

- 도덕 교과서와 함께 하는 논술  
‘거짓말’, ‘인권’, ‘장애우’
- 읽기 교과서와 함께 하는 논술  
‘방구 아저씨’, ‘알 게 뭐야’

## 방구 아저씨

손연자/푸른책들/6-1 읽기 교과서

방구 아저씨가 떠났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처량하게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방구 아저씨의 귀빠진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덜컥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지 일 년 녀 달하고 스무하루가 된 날이었습니다.

안골 마을 목수인 김봉구 아저씨는 방귀쟁이입니다. 아이들만 보면 살금살금 다가가 엉덩이를 쭉 내밀고 ‘뽕!’ 방귀를 뀌니다. 그러고는 싸우지들 말고 사이 좋게 나누어 먹으라고 젊잖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코를 싸쥐고 야단인 시늉을 하면, 또 번개처럼 “엣다, 이건 덤이다.” 한 번 더 엎어 줍니다. 방귀 덤을 들썩 아이는 팔팔 뛰고, 동무들은 깔깔거리면 배를 잡습니다.

조무래기 아이들은 봉구 아저씨를 줄줄 따라다니면서

“아저씨, 나 방구나팔 한 번만.”

하고 조르기도 합니다. 아저씨는

“오냐, 알았다.”

덱석 들어 엮고는 논두렁 밭두렁 뛰어다니며 뽕뽕 장단 맞춰 붙어 줍니다. 이래서 봉구 아저씨는 방구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방구 아저씨는 꽃상여를 넣어 두는 곳집 근처에서 혼자 삽니다. 돌림병에 식구들은 몽땅 잃은 지 십수 년이 지났지만, 통 장가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이다음에 죽으면 제사 지내 줄 아들 하나는 있어야지.”

이웃들이 걱정을 해도 소 웃음만 웃습니다. 방구 아저씨는 마른버짐 허영게 솟은 안골 아이들을 자식처럼 보살핍니다. 공출로 농사지은 것 다 빼앗기고 끼니를 거르는가 싶으면 시래기죽일망정 넉지시 불러다 먹이고,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가면 등에 꼭 맞는 지게도 만들어 줍니다.

오늘 밤도 방구 아저씨네 방은 놀러 온 아이들로 그득합니다. 곳집의 지붕만 보아도 간이 오그라들고 그득합니다. 곳집의 지붕만 보아도 간이 오그라들고 손금마다 조르륵 땀이 흐르지만-----잘금잘금 오줌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아이들은 수무 걸음 전부터 질끈 눈을 감고 숨도 안 쉬고 뛰어옵니다. 그 때마다 방구 아저씨는 벌레 먹은 콩이라도 감춰 두었다가 볶아 내고는 합니다.

근동의 고래등같은 기와집은 다 방구 아저씨 손끝에서 생겨났지만, 정작 아저씨네 집은 머리를 수그리고서야 겨우 드나드는 오두막집입니다.

“먼저 간 식구들한테 미안해서 여태 못 지으신 거야.”

“아니야, 장가가면 지으려고 아직 안 지으신 거야.”

택조랑 윤서가 서로 우기자, 코짹짹이 길만이가 냉큼 끼어듭니다.

“아저씨네 집은 왜 안 지어요?”

“내 집? 허허허, 내 집은 나중에 세상 좋아지면 지을 거야.”

“아저씨, 세상이 좋아져요?”

애늬은이 희철이가 도리질을 합니다.

징병이니 징용이니 하면서 밭에서도 끌여가는 세상입니다. 공출도 뺏길나서 기름진 쌀은 다 일본으로 실어 가고, 대신 주는 배급 쌀에는 싸라기가 늘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총알을 만든다고 낫그릇, 낫대야에 돌쟁이 숟가락까지 훑어갑니다. 우물집 두섭이네는 건디다 못하여 개다리소반 등에다 깨진 바가지 주렁주렁 매 달고 만주로 떠났습니다.

“그래도…… 좋은 세상은…… 꼭 온다. 봐라 밝은 지금 캄캄한 밤이다. 하지만, 한잠 자고 나면……아침이 와 있지 않던?”

방구 아저씨는 눈 끄뻑이며 느릿느릿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열흘 붉은 꽃 없고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라고 쥐 오줌 얼룩진 천장을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머리에 난 부스럼 자국처럼 둥그스름하던 구름들이 잿빛을 띠자, 하늘은 금세 찌푸리듯 얼굴을 구겼습니다.

“봉구, 집에 있는가?”

“이장이 웬일이요?”

방문을 열며 방구 아저씨가 떨떠름한 표정을 합니다. 이장은 마을일을 한답시고 집을 살피다가는 일본 관리한테 일러바치기 일쑤입니다. 두섭이네가 농사지을 땅을 빼앗기고 떠난 것도 이장의 이김 탓이라고 방구 아저씨는 믿고 있습니다.

“더러운 꼬락서니 안 보고 훌훌 잘 떠났지.”

방귀만 뀌어주면 깔깔거리던 어린 두섭이가 눈에 아삼아삼할 때마다 방구 아저씨는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러다가도

“이장, 그놈의 염소수염을 그냥!”

하며 곱방대로 나무 재떨이를 타다닥 두들겼습니다.

“난 자네 집에 오면 안 되나?”

이장이 암상스레 대꾸를 합니다. 그러더니 마루에 척 걸터앉아 씹지부터 꺼냅니다.

“할 말이 뭐가?”

방구 아저씨가 통명을 뱉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장은 양 불이 쪽들어가게 곱방대를 빨고서야 입을 엽니다.

“이번에 내려온 산림관이 자네 소문을 들은 모양이네.”

이장은,

“히라노 그 사람 별종이야. 조선 것이라면 사족을 못 쓰더군. 아 글썄 요강까지도 신줏단지 모시듯 모셔 놓았더라니까.”

하며 혼자말을 하더니,

“방에 있는 장말이야. 그 사람한테 넘기지 그래.”

하고 본심을 털어 놓았습니다.

“무슨 소린가? 자네, 앞잡이 노릇도 모자라 인제 거간꾼 노릇까지 하려나?”

방구 아저씨가 방문을 소리 나게 닫았습니다. 이장은 새우 눈초리 썰쭉해 가지고 염소수염 바르르 떨며 사립문을 나갔습니다. 그랬지만 이들이 다 하고 찾아와 졸라 댔습니다. 방구 아저씨는 산처럼 꿈쩍을 안 하였습니다. 대신 윗목에 놓인 괴목장을 반들반들 닦았습니다.

백통 은나비 괴목장은 말합니다.

“내가 나무였을 때 파란 날개를 가진 새한테 말하였지요. 누군가 날 따듯한 눈으로 보아 주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다고.”

그럴 때 방구 아저씨는 안동으로 떠나던 그 날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 돈 많이 벌어 가지고 얼른 와!”

“몸조심하세요, 당신!”

나비처럼 팔랑거리는 자식들의 손짓을…… 은나비로 와 앉은 수줍고도 먼 아내의 목소리를……

방구 아저씨는 주먹으로 쿵쿵 가슴을 칩니다. 뱃속에 새겨진 사랑하는 아이들의 눈망울과 사시사철 맨발이던 착한 아내가 너무나도 그리워서……

방구 아저씨가 처음 목수 일을 배울 때, 아내는 열일곱 고운 새댁이었지요. 그랬건만 그 때도 먹구름 뒤덮인 세상인지라 살림살이는 쪼그랑 오이였지요.

새댁은 구정물에 손등 마를 새 없이 품을 팔아 살림을 꾸렸지요. 식구가 불어났어도 여섯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발바닥에 불나도록 종종거린 아내 덕분이었지요.

경상도 안동으로 집을 지으러 갔다가 삼 년 만에 허위허위 돌아왔을 때는 사립문 밖에서부터 자식들 이름을 불렀지요. 하지만, 댁싸리 울타리 둘러친 초가집은 잠잠하였지요.

지붕 위의 풀들만이 야윈 손을 흔들었을 뿐이지요.

“어찌됐나, 명들이 고것뿐이니.”

노인들이 나서서 위로를 하였지만 아저씨는 몇날 며칠을 물 한 모금 안 마셨지요. 보름 만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도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지요. 낮밤을 잊은 수염은 웃자라 턱을 가리고 붉은 실핏줄 내비친 두 눈은 켤하였지요. 죽은 아내의 생일날 방구 아저씨는 백통 은나비 장식이 화사한 괴목장을 제물로 바쳤지요. 장 안에 고이 접어 넣은 노랑 저고리 다홍치마 한 벌. 지지리 고생만 하다가 간 아내에게 처음으로 준 선물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그 장을 일본 산림관한테 넘기라고 이장은 저리도 끈덕지게 조르고 있습니다.

기다려도 안되자, 하루는 히라노 그 사람이 말을 타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 안장 위에 꼳꼳이 등 펴고 앉아 사립문 이쪽에 방구 아저씨랑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니다. 괜히 이장만 연방 허리를 구부리며 손바닥을 비빔니다.

“자네, 쌀 두말이면 충분하겠지?”

이장이 쨍긋 눈짓을 합니다. 그냥 빼앗아 가도 할말이 없을 판인데 이 정도면 여러 말 마라는 뜻입니다.

“뭘, 쌀 두 말 값? 이봐, 그 장은 애들 엄마 목숨이야.”

방구 아저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갈색 말이 놀라 경청 앞발을 듭니다. 말갈기를 부르르 떨고는 히잉 긴 울음도 읊니다. 그러더니 거무튀튀한 주둥이 비틀어 누린 뺨적니를 내보이며 한바탕 투레질을 합니다. 히라노는 그 자리에서 갈색 말을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나지막한 토담길을 등 곳곳이 세우고 갔습니다.

갓스물에 일본에서 순사가 되자마자 읍내로 온 이토는 새파랗게 젊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렸지만 이토는 새벽같이 찾아와 방구 아저씨를 깨웠습니다.

“당신, 목수 맞지?”

“그렇소.”

“역시 목재가 필요하겠군. 그래서 허가 없이 나무를 베었나?”

“난 그런 일 없소.”

“없어? 그럼 우리 대일본의 산림관이 거짓말을 했던 말이야. 뭐야?”

이토가 다짜고짜 방구 아저씨의 뺨을 갈겼습니다. 이토는 자기를 순사 나리라고 부르지도 않고 굽실거리지도 않는 방구 아저씨가 꽤 씹하였습니다.

“방 안에 있는 저 장도 얼마 전에 마음대로 나무를 베어 만들었다며?”

“당신네 나라에서는 금방 벤 나무로 장을 짜오?”

서툴다 싶던 방구 아저씨의 일본말이 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뭘? 당신네 나라? 대일본 제국과 조선이 하나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나? 이거 불량선인 아냐? 조사할 게 있으니 저 장을 지게에 지고 따라와!”

이토는 들고 있던 순사봉으로 방구 아저씨의 가슴을 쿡쿡 찌었습니다. 방구아저씨 이마에 불뚝 시퍼런 힘줄이 솟았습니다.

“네 이노옴,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어디 와서 함부로 행패냐, 행패가…….”

조선말! 그것은 조선말이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먹살을 잡힌 이토가 봉 날았습니다. 그러고는 빗물 스민 마당에 다 코를 박았습니다. 이토는 진흙투성이 얼굴로 통기둥 일어났습니다.

“조선놈 주제에 감히!”

이토의 순사봉이 방구 아저씨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조선 사람 앞에만 서면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이토. 이토의 나무 순사봉은 그 순간 쇠막대기가 되었습니다.

"억!"

방구 아저씨가 풀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가 얼굴에 흘렀습니다. 잠시 그대로 있던 방구 아저씨가 스르르 무너졌습니다. 부릅뜬 눈에는 봄비 내리는 하늘이 가득 찼습니다.

“아이쿠머니나!”



사립문을 들어서던 이웃, 분순 엄마가 미역국 그릇을 동맹이치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방구 아저씨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날로 방구 아저씨는 거적때기에 두르르 말려 가족들 옆에 묻혔습니다. 정수리가 뺨 뚫린 채로였습니다. 서슬 퍼런 순사들 눈길에 꽃상여도 타지 못하였습니다.

곶집 옆에서 일생을 살고도 꽃상여도 못 타 본 방구 아저씨.

그렇게 방구 아저씨는 떠났습니다. 희철이, 택조, 윤서, 길만이가 눈물콧물 범벅되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토를 ‘이 똥아, 이 똥아.’ 속으로 갈면서 아이들은 따라갔습니다. 눈 비 그치자, 달려온 흰 구름이 똥똥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아저씨의 방귀 자국 같은 흰구름을 고개 숙인 아이들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해가 뜨고 달이지고, 어느 계절에는 바람불고 눈비 내리고, 그러면서 세월은 흘러갈 것입니다. 꽃피고 새 울고 무지개도 뜨면서 세월이 흐르면 방구 아저씨는 한 줌 흙이 되고 백골이 되겠지요.

그러나 방구 아저씨의 백골 맨 꼭대기에는 뺨 구멍이 나있을 겁니다. 새파랗게 젊은 일본 순사가, 조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열 배의 힘을 넣어 내려친 순사봉 자국을, 막 오십 줄에 들어섰던 아저씨는 영원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영원히!

### 3. 역사논술

#### 1) ‘만약에’로 시작하는 역사 뒤집기

#####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의 선택

흥선대원군 하면, 쇄국정치를 떠올리며, 고종과 명성황후의 개방정책과 대립하여 이 두 세력을 말기 조선의 정치 혼란의 요인으로 보았다.

신미, 병인년의 두 양요로 각각 미국과 프랑스를 물리친 조선인들은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을 지지하게 되었고, 이후 고종 시대 때 개방을 하려 해도 유교에 물든 사대부와, 유생들은 흥선대원군 때의 전례를 들어 우리도 뭉치면 외세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고종의 개혁에 전폭적인 지지를 하지 않게 된다.

지금 들으면 일반인도 고개를 저을 조약들을 조선정부가 순진하게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흥선대원군 시절 외국과 교류하고, 조약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경험을 쌓을 수 없었던 이유가 가장 크다.

조선은 이때 일본과의 조약 체결로 뒤늦게 후회를 하게 되지만, 이미 작성하고 불평등조약을 체결한 일본으로서의 조선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 매우 오랫동안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고, 1882년 미국과 매우 평등한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나서야 일본과 약간의 시정 협의가 오갈 수 있게 된다.

이제야 평등조약과 불평등 조약의 차이를 알게 된 조선은 이후 모든 대외조약 체결

의 기준을 조미수호조약으로 삼게 되지만, 고종이 등극한 후 무려 20년여 만에 기록한 이 조약은 매우 늦은 선택이었다.

만약 흥선대원군 집권 초기부터 그의 개혁성향과 더불어 개화를 단행하게 되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지도 모를 일이다.

고종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시아버지에 대해 자유로웠던 황후는 최익현을 움직여 대원군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게 하고 고종이 이에 동조해 친정을 선포하면서 대원군이 물러나게 된다.

22살에 친정을 시작하게 된 고종이 가장먼저 시행한 것이 개화이다.

아버지와는 다른 생각을 품었던 고종은 개화와 개혁만이 조선이 살길임을 간파하였다. 이미 개화의 뜻을 품고 있었지만, 지난 10년간의 섭정으로 온 조정에 자신의 신하들만 박아 댄 흥선대원군의 잔재와 너무나 약한 국력, 그리고 청의 간섭은 그의 시도를 매번 좌절시켰다. 그때에 일어난 것이 개항을 요구하는 일본의 무력시위다. 밤낮없이 찾아와 무력을 사용하는 일본에 고종은 못이기는 척 첫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이에 탄력받은 듯 연이어 유럽 열강들과도 강화를 맺는다. 그러나 너무 늦은 개화는 ~

고종의 부인이며, 정치적 동반자이자, 조언자인 명성황후의 개화 의견과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각각의 입장에서 고종에게 상소를 올리는 글을 쓴다.

## 2) 모의재판

순장제도에 대해 재판하기

## 4. 창의력논술

- 뒷이야기 상상하기
- 상황에 맞는 판단과 근거